

광주 공기산업 미래 먹거리 주력산업 키운다

대창 등 9개 기업과 448억원 투자협약 체결 일자리 300여개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시가 공기(空氣)산업을 미래 먹거리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주)대창 등 9개 기업과 448억원의 1차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기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투자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주)대창, (주)아이티스퀘어 등 타지역에서 광주에 투자하는 2곳과 와우코리아(주), (주)다원냉각기, (주)에치테크, (주)스마트블루, (주)센도리, (주)삼성전자스타비투비, (주)유투씨앤씨 지역기업 7곳이다.

이 중 4개 기업은 이미 광주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2개 기업은 사업부지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3개 기업은 투자를 준비 중이다.

(주)대창은 전북 정읍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140억원을 투자해 기존 생산 판매하던 바이러스 정정기를 업그레이드한 소형 공기정정기 제조 설비를 하남산단에 증설한다. 이미 공장을 착공했고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와우코리아(주)는 첨단산업단지에서 생활가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88억원을 투자해 공기정정기용 필터 생산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첨단산단에 있는 (주)다원냉각기는 공기산업 융복합단지인 평동3차 산업단지에 19억원을 들여 광촉매필터를 활용한 유해가스 제거장치 생산공장을 착공했다. (주)에치테크는 공기정정 필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33억원을 투자해 평동3차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미 부지 매입을 마친 상태다.

(주)스마트블루는 산업용 송풍기 및 공기조화기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며, 20억원을 투자해 평동

3차 산업단지에 제조설비 공장부지를 매입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주)센도리는 공기순환기 및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억원을 들여 현재 운영 중인 첨단산단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주)삼성전자스타

비투비, (주)유투씨앤씨, (주)아이티스퀘어 등도 에너지밸리산단과 첨단산단 내에 투자를 준비 중이다.

광주시는 아직 실무자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투자 장애요인 해결 및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별 전담공무원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3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주력산업으로의 공기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광주시는 2027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평동 3차 산업단지에 13만2000㎡ 규모로 공기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산업단지 3만㎡에 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공기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재희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투자기업들이 광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주)대창, (주)아이티스퀘어 등 9개 기업체 대표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전남도, '농림어업총조사' 다음달 18일까지 21만 가구

전남도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내 21만여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한다.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된 전국 규모 통계조사다.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와 분포, 구조, 경영형태를 파악해 행정리 단위의 경제활동, 생활 기반시설 등 통계를 생산하는 농산어촌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될 중요한 조사다.

전남도는 올해 공무원 300여 명과 조사원 2200여명을 투입하며, 인터넷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나눠 진행한다.

인터넷조사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문면접조사에 참여가 어렵거나 비대면 방식을 선호한 도민들은 누리집을 통해 미리 참여하면 된다.

방문면접조사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며, 인터넷 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농업, 임업, 어업, 지역조사(행정리 단위) 등 4종으로 구분된다. 조사항목은 농기계 보유 현황을 비롯 축사 형태, 재배 과수, 사육 가축, 산림 면적, 어선 종류, 양식 품종, 종사 기간 등 총 127개로 구성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3일 전라도의회서 농어민 공익수당 토론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은 23일 오후 2시 전라도의회에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성보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모든 전남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로는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 1), 김원숙 전남 여성농민회 사무처장, 나운림 진보당(옛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장, 김동현 전남 장흥군농민회 집행위원장,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전남도는 2019년 10월 제정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근거로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민에게 연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조례는 지급 대상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어민 단체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선 조례를 개정해 등록 경영주뿐 아니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서 또 이물질 섞인 수도물 사고

두암동 2개 아파트 단지서...1600여 가구 불편

광주에서 또 수도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 기술분야 전문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대책 보강까지 했다는 입장이지만, 수도물 사고는 끊

이지 않고 있다.

22일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북구 두암동의 2개 아파트 단지에서 흐린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아파트는 각각 1130여 가구, 470여 가구 규

모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아파트 저수조를 청소하고 새로운 물을 채우도록 긴급 조치했지만, 주민들은 상당 시간 수도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이물질 성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서구 한 아파트(570여 가

구) 수도물에서 흙 등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근 상수도 관련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파트 저수조로 이물질이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월 5급 이하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과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 기술분야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역량 있는 직원을 대폭 보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감염병 살균 지능형 안전시스템 개발 추진

펄스 UV 방역시스템 개발에 2023년까지 국비 16억원 투입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중이용시설 감염병 확산 방지용 고효율 지능형

살균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안부가 지역별 재난·안전분야 현안 이슈와 해결방안을 기획, 자유 제안하는 방식으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주시는 ‘교육·복지시설 감염병 확산방지용 펄스 UV(자외선) 대면적 공간 방역시스템 개발

·실증사업’을 제안해 선정됐으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1억 가운데 국비 16억원을 지원받는다.

2021년에는 대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고에너지 펄스 UV(자외선) 광원과 모듈, 3D공간 맵핑과 사물인식·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2022년부터 2년간 교육·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실증하면서 방역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통해 빅데이터 연계 이상 징후 발생 예측기술도 함께 개발·실증한다.

기존 인력에 의한 약품 분무방식 방역은 냄새와 열독, 흡입 등으로 인해 사용 장소와 횟수가 제한적이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해 안전과 비용면에서 손실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가 제안한 살균 방역시스템은 환경·분무 오염 없이 다수의 넓은 공간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정밀하게 소독할 수 있는 ‘대면적 공간 살균 방역시스템’으로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I·SEOUL·U
나의 나의 서울

서울시는 전라도와 함께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역이 함께 살어나도록 서울시가 방법을 찾습니다

• 3대 분야 • 9개 추진과제 • 39개 상생사업 추진 중

서울-지역 상생사업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기획행정 → 대외협력

사람

- 공무원 인사교류
- 귀농귀촌 지원
- 농촌일자리 지원
- 농촌체험교실
- 문화·예술공연 교류 확대
- 박물관·미술관 전시 교류 확대
- 서울농장
- 서울시 공무원 교육과정 지방공무원 개방
- 서울지원 지역청년 개방
- 서울-지방 청년교류 공간 운영
- 지역청년 혁신체험 학점인정프로그램
- 지역 연계 일자리창출
- 지역정보 교류공간 상생플랫폼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 청년농부, 서울을 누비다
- 청년 지역교류 지원
-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 학교 밖 청소년 산촌유학 및 대안학교 교류

물자

-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 서울타 지자체간 MICE 공동마케팅
- 마을과 마을 상생공동체 MOU 체결 지원
- 상생 관광패스
- 온라인 서울국제트레블마트
-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
- 지자체간 디자인 MOU 활성화
- 지역상생 홍보관
- 찾아가는 혁신로드
- K-트레블버스
- 혁신기술 지역 공유